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82)

제3부 :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22 2) 96사단 주둔지-(18) 실체 드러난 사라봉갱도  
"전쟁의 상흔... 이젠 역사문화자원으로"

입력 : 2007. 10.25. 00:00:00



▲태평양전쟁당시에 조성된 사라봉의 대형갱도 내부에서 입구쪽을 바라본 모습.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 제주시권 대표적인 일본군 전진거점진지 근대유산 등록불구 방치... 조사정비 시급

제주시 사라봉의 일본군 갱도진지는 제주섬을 무대로 최후의 전쟁을 준비했던 일제침탈의 생생한 역사현장이다. 특히 제주도 서남부 지역뿐 아니라 제주시 도심권 오름에도 일본군이 대규모 갱도를 구축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일본군은 왜 사라봉을 중요 군사기지로 만들었을까.

사라봉 정상에 서면 서쪽으로는 당시 일본 육군비행장으로 조성된 정뜨르비행장(현재 제주국제공항)이 보인다. 서쪽으로는 제주동비행장인 진드르비행장(제주시 삼양검문소~신촌 사거리)이 있다. 북쪽은 제주섬의 관문이자 군사물자 수송항이었던 산지포구(제주항)가 있다. 사라봉은 제주동·서군사비행장과 항구를 조망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남쪽으로 시야를 돌리면 일본군 96사단사령부 주둔지였던 삼의양오름 일대와 96사단 예하의 294연대병력이 주둔했던 민오름 남조봉 등이 확연히 들어온다. 사라봉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핵심 군사시설을 방어하는 군사기지로 중요시됐다.

그래서일까. 5백여m에 이르는 사라봉의 갱도는 모슬포 송악산 외륜의 갱도진지를 연상시킨다. 송악산 외륜의 갱도진지 역시 모슬포 해안으로 상륙하는 미군 등 연합군을 초기에 저지해야 하는 전진거점진지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사라봉 또한 전진거점진지로 요새화됐다. 당시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에도 사라봉 일대는 '전진거점진지'(前進據點陣地)로 표시돼 있다. 전진거점진지란 주저항진지의 전방에 위치한 제일선의 기지로 상륙하는 연합군과 맨 먼저 맞닥뜨린다.

제주동·서비행장과 제주항은 일본군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라봉에 대규모 갱도를 구축하고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제주시 산천단에 본부를 둔 96사단 예하병력이 파견됐다.

게다가 일본군 뿐 아니라 당시 제주시 동부 및 구좌·성산지역 주민들까지 사라봉·별도봉 갱도진지 구축에 동원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사라봉갱도와 연결된 교통호.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당시 16세로 강제동원됐던 김용두씨(제주시 화북1동·1929년 생)는 "징용된 한국사람들이 사라봉에서 목갱이로 굴을 팠다"며 "자신도 이곳에서 흙을 날랐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오름 정상부에 포가 설치된 것을 봤다"며 "사라봉에 포병부대가 주둔했었다"고 회상했다.



▲사라봉에 구축된 일본군 대형갱도의 출입구 부분.

사라봉의 갱도는 그 중요성을 감안 지난해 11월 정부에 의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사라봉갱도는 안내문 하나 없이 방치되면서 점차 잊혀진 역사현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 경관을 담은 대형 관광안내도가 산책로 입구에 설치돼 있고 제주시가 최근 2억원을 들여 스포츠시설을 마련했지만 정작 이곳이 중요한 역사현장임을 말해주는 표지판은 어디에도 없다. 고난과 비극의 역사현장도 훌륭한 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데도 당국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하루빨리 역사적 성격규명과 이를 토대로 보존정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이나 강제동원 됐던 당사자들은 물론 사라봉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아픈 역사현장을 묻혀두지 말고 후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진드르비행장과 별도봉, 정뜨르비행장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김자봉씨(제주시 일도2동)는 "현재 별도봉 산책로는 갱도를 파내면서 흙이 다져져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별도봉·사라봉에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만큼 안내문이라도 세우고 정비를 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전문가리포트]역사·문화 밀집..가치 재창출 시급**

사라봉과 별도봉 일대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휴식과 교육 공간이 가장 밀도있게 함축되어 있는 지역이다.



거친 바다와 싸워온 제주도민의 삶과 한을 담은 대표격 제주굿 칠머리당굿의 진원인 칠머리당 본향당이 이곳 사라봉 중턱에 있다. 일제식민지 이전의 역사유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봉수대, 의녀 김만덕을 기리는 모충사, 일제에 항거했던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의병항쟁기념탑, 제주도 최초의 유인등대인 산지등대 등이 있다. 일제군사유적으로 사라봉과 별도봉 일대에 구축된 갯도진지, 제주현대사로 넘어와 4·3집단학살의 현장이 있다. 제주10경 중 하나인 '사봉낙조(沙峰落照)', 제주항과 제주시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로서 관광의 기능도 있다.

또 제주시민들에게는 산책 및 운동코스이기도 하다. 국립제주박물관, 우당도서관,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제주시생활체육관 등 하드웨어들도 있다.

그런데 사라봉 일대 일제군사유적을 탐사할 때마다 줄 곳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사라봉이 품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하드웨어들이 별개의 존재들로 놓여 있다는 느낌이다. 곳에서 제주의 전통신앙과 문화를 읽고, 봉수대와 김만덕, 기념탑 등을 통하여 역사를 배우고, 일본군 갯도진지·4·3학살터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의 광기를 넘어선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들이 별개인 채 무심하게 서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인 일본군 갯도진지는 사라봉을 오르는 산책객과 관광객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사라봉 일대가 가지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 그 속에서 일제 갯도진지의 의미 등에 대한 해석과 후속조치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강순원/제주역사문화진흥원 특별연구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http://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